

1 개요

지장본풀이는 지장아기씨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지장아기는 친정과 시댁의 가족이 차례로 죽는 일을 겪고 새남굿을 하여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보낸 뒤에 자신은 새의 몸으로 환생하였다.

2 내용

남산과 여산이 늙도록 자식이 없어 관음사에 불공을 드려 지장아기를 얻었다. 지장아기는 세 살적까지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네 살 때부터 조부모, 부모가 차례로 죽어 여섯 살이 되자 혼자 남게 되었다. 외삼촌 댁으로 가서 살았으나 학대를 받다가 쫓겨났다. 그러나 하늘이 봉새를 보내어 날개를 덮어주고 또한 밥과 옷을 주며 보살핀 덕택에 무사하였다.

지장아기가 착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열다섯에 문수의 댁에 시집을 갔다. 지장아기는 아들을 낳고 착하게 살아 재산도 물려받았다. 그러나 열여섯에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죽고, 열일곱에 시아버지가 죽고, 열여덟에 시어머니가 죽더니, 열아홉에는 남편과 아들마저 죽었다. 시누이에게 가서 결방살이 하였으나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다.

지장아기는 빨래를 갔다가 지나가던 중을 불러 사주를 보았다. 가족의 새남굿을 하라는 중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누에를 쳐서 명주를 짜서 피륙을 마련하고 중의 행색을 하여 사주를 받아 제물을 마련하였다. 그리고는 새남굿을 하여 앞서 죽은 가족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낸 뒤에 지장아기는 죽어서 새 몸으로 환생하였다.

3 특징

안사인이 구연한 자료이다. 지장아기가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 차례로 죽는 일을 겪은 뒤에 새남굿을 하여 영혼을 위로하고 자신은 새의 몸으로 환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간단한 이야기임에도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새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거나 못살게 구는 존재이다. 새는 사람들에게 자꾸 접근하여 못살게 굴으로써 고통을 하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지장아기는 새로 환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불운한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지장아기 자신은 새의 존재를 모르고 가족들이 속절없이 죽게 하는 일을 겪었다. 이들 새를 수시로 쫓아내야 편안히 살 수 있는 법이다. 결국 지장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새의 존재를 알게 하고 새를 쫓아내게 함으로써 더 큰 불행을 막게 하는 구실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핵심어

남산, 여산, 불공, 지장아기, 새남굿, 새, 봉새, 문수의 댁, 결방살이, 환생, 사주

5 원전 서지사항

지장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